

現代의 危機와 哲學 ;

不安한 生을 營爲하는 分께 [제4회]

金基錫

現代의 文化는 自己로서 自己로부터 헤여져야 하는 마당에 다다렸습니다. 自己로부터의 袛別. 이것이 現代文化의 앞에 노힌 오직 한 갈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케 생각하면 現代의 文化는 벌써 이 길에 발을 내어노릇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로 더부러 소매를 난호기 위하야는 암만해도 두나가 있지 안허서는 안됩니다. 이 두나는 서로 저편을 끝까지 否定하는 絶對的인 他者로서의 意味를 가지지 안허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現代의 文化는 말하자면 이 두나에 갈리기 시작하고 또 해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現代의 文化는 분명히 自己에서 헤여져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들은 어제 오늘 文化擁護, 古典復興의 소리를 듣거니와 부질 없이 목청만 높이기를 삼가는 한편 그 속에서 現代文化의 自己省察에 대한 한 개 새로운 志向을 잃어 맞당합니다.

現代의 文化는 文化로부터 文化의 根源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나는 文化의 哲學에로의 歸還이라고 부르려합니다. 現代文化의 課題는 진실로 이 自己省察, 自己批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自己省察은 한 개 새로운 自己에 말하자면 自己 아닌 自己에 옮겨오지 안코는 안됩니다. 現代의 文化가 저심한 混亂 속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哲學에 돌아오려는 것은 哲學이 다른 아닌 文化의 새로운 自己이기 때문입니다. 現代의 文化가 自己로 더부러 소매를 나혼고다고 했거니와 이 소매를 난호 향하는 것이 곧 哲學이 아니겠습니까?

哲學은 아시다 싶이 『哲學하는 일』이요, 이 『哲學하는 일』에 있어서 一切의 文化는 自己를 構成 또 持□시키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觀念과 現實이 있고 現實이 觀念의 地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觀念과 哲學과 現實이 있고 哲學은 觀念의 地盤이 된다고 보아서 어떠겠습니까? 나는

문화와 哲學의 聯關을 이제 그대로 哲學과 現實의 聯關에 옮기려고 합니다. 문화가 그 根源인 哲學에 돌아와야 하는 것과 함께 哲學은 그 根源인 現實에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哲學이 오늘에 있어서 저 廣範한 現實속에 自己를 解放해야 하는 것은 □□을 위해서와 現實을 위해서와의 두 갈래의 뜻을 가진다고 나는 봅니다. 現實이 분명 哲學의 地盤인 한에서 이 살진 □野를 버리고, 나고 자라고 뛰어보고 달릴 길이 잇겠습니까? 哲學은 現實에 歸還하고 現實에 參加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哲學은 나아가 現實을 理解, 批判, 乃至 再建하지 안해서는 안됩니다. 哲學에서 과연 이렇게 할 힘이 맡기어진 것이겠습니까?

哲學은 人間思惟의 源流로서 만흔 高貴한 業績을 人類의 生活및 그 思想에 끼쳤습니다. 科學의 殷盛에 따라 哲學의 領域이 좁어진다고 하는 이들이 잇지마는, 이것은 哲學을 한 개의 學으로 보고 學의 根源으로 보지 못하는 過誤에서 오는 지나친 걱정입니다.

사람에게 理性이란 게 잇고 이 理性에 잇어서 實在의 世界에 향하는 누를 수 없는 志向에 몰리는 한에서 哲學은 人間으로 더부러 久遠히 그 行程을 가치하지 아니치 못합니다.

哲學은 그 發祥地인 希臘에 잇어서 實在의 學으로서의 形而上學을 세웠습니다. 中世紀의 고요한 僧院을 거쳐 『게르만』의 流域에 흘러나리면서 依然히 主觀精神에 기우러져 觀念主義, 理性主義를 싸혔습니다. 그러나 哲學은 어디까지든지 哲學 자신의 地盤인 『生』과 現實에 돌아오지 안해서는 안됩니다. 現實의 품 안에 돌아올 때 哲學은 얼마나 설레는 가슴, 얼마나 벽찬 일감□ 안는 것이겠습니까?

現代의 哲學이 □想主義에서 버서나 자기를 진정한 意味의 『現實의 學』으로 거듭 構成하기까지에는 아직 그 길이 遼遠합니다. 哲學的 精神의 擁護. 이것은 現代의 문화와 아울러 現代의 現實을 위하야 시급하지 안할 수 없습니다.

現代에 이르러서의 저 놀라운 理論의 喪失은 理論의 喪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實踐의 喪失을 불리이르킵니다. 아하, 現代 너 『소피스트』의 世紀, 人間과 歷史에 關한 그릇된 見解 하나가 수만흔 사람들의 思惟와 行動을 짓발고 오히려 그 흔적을 後代의 思想에 남길 때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現實은 哲學을 救援하고 哲學은 現實을 救援합니다. 現代의 危機는 앞에서도 보았거니와 現代에 잇어서의 文化의 危機와 現代에 잇어서의 生活의 危機로 난할 수가 잇습니다. 그런데 文化의 危機라 文化의 哲學에로의 歸還에 잇어서 어느 程度로 超克된다고 하면, 이제 이 生活의 危機 또는 現實의 危

機는 무엇에 있어서 克服되고 또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現實의學으로서의 哲學의 建設, 나는 여기에 있어서 뿐 現代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實踐과 行動이 救援된다고 봅니다. 現代文化의 모든 領野를 通하여 眞實한 歷史觀, 眞實한 世界觀을 바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現代의 文化와 함께 現代의 現實이 그것을 要求하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